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0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 원산지수사팀장 전 병 호 ☎440-3431 담당자 김 장 용 ☎440-343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특사경, 먹거리 불안 해소 위해 원산지수사팀 가동

-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7명 규모의 원산지수사 전담팀 신설 -
- 원산지 거짓표시 등 농·축·수산물 불법 행위 단속 및 수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시 특별사법경찰과 내에 원산지수사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과 중국산 김치 파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와 농·축·수산물 먹거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

지난 2월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원산지수사팀은 팀장급 1명과 직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농·축산물 및 어업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 김치, 수산물 등 특정 주제를 정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월 기획 수사를 벌이거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수시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식품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단순한 현장 적발보다 복잡한 상황을 파악해야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번 원산지 수사팀 운영으로 농·축·수산 분야 수사 정보를 연계해 점차 교묘해지는 원산지 위반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농·축산 분야에서 명절 성수기 원산지 표시, 부정 축산물 유통, 분쇄가공육 제조업소, 급식 납품업소를 수산 분야에서는 명절 원산지 표시,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꽃게 불법 어업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식품 제조·판매업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배달음식점 등 식품 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116건을 입건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비대면 식품, 즉석·편의식품, 보양식을 비롯한 식품, 원재료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시기별로 먹거리 관련 기획 수사를 1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식품 안전은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점 개선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참고 > 먹거리 단속 현장 사진

참고

먹거리 단속 관련 현장 사진



식품제조업소 단속



식재료 위생관리 단속



유통농산물 원산지 단속



축산물 위생업소 단속



불법 수산물 유통 단속



수산물판매업소 원산지 단속